

200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08년 전망

이병희·강승복·정성미*

I. 2007년 노동시장 동향

1. 2007년 노동시장 개관

2007년 경제성장률은 전년(5.0%)보다 하락한 연간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편 수출 및 수입은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확산, 미 달러화의 약세,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 고용 사정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2007년(1~11월) 취업자증가율은 전년(1~11월)보다 0.1%p 하락한 1.2%로 취업자 증가가 283천 명에 그쳤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1~11월)과 같은 61.9%를 기록하여 정체상태를 보였으며, OECD 기준의 15~64세 인구의 2007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1~11월)대비 0.1%p 감소한 66.2%를 기록하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1%p 감소한 반면, 여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고용률은 전년(1~11월)대비 0.1%p 상승한 59.9%를 기록하였으며,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0.1%p 상승한 63.9%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0.3%p 감소한 3.2%를 기록하였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로 인해 고용률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lbh@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angsb@kli.re.kr).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smjung@kli.re.kr).

〈표 1〉 주요 실물경제 지표 추이(전년동기대비)

(단위 : %)

	2006	2007				
		1/4	2/4	3/4	4/4(전망)	연간(전망)
GDP 성장률	5.0	4.0	5.0	5.2	5.1	4.8
민간소비	4.2	4.1	4.2	4.7	4.7	4.4
건설투자	-0.4	3.9	3.2	0.9	0.1	1.8
설비투자	7.6	10.8	11.9	1.6	6.2	7.6
상품수출	12.6	10.8	10.6	9.1	14.3	11.3
상품수입	10.8	10.4	11.3	5.0	13.2	10.0

자료 : 한국은행(2007. 12), 「국민계정」 및 「2008년 경제전망」.

〈표 2〉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03	2004	2005	2006	2007(1~11월)		
						1~11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37,340 (1.0)	37,717 (1.0)	38,300 (1.5)	38,762 (1.2)	38,749 (1.2)	39,154 (1.0)	
	경제활동인구	22,957 (0.2)	23,417 (2.0)	23,743 (1.4)	23,978 (1.0)	23,997 (1.0)	24,236 (1.0)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2,139 (-0.1) (-30)	22,557 (1.9) (418)	22,856 (1.3) (299)	23,151 (1.3) (295)	23,165 (1.3) (295)	23,449 (1.2) (283)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61.5 (74.7) (49.0)	62.1 (75.0) (49.9)	62.0 (74.6) (50.1)	61.9 (74.1) (50.3)	61.9 (74.2) (50.3)	61.9 (74.1) (50.3)	
	고용률 (남성) (여성)	59.3 (71.9) (47.4)	59.8 (72.0) (48.3)	59.7 (71.6) (48.4)	59.7 (71.3) (48.8)	59.8 (71.3) (48.8)	59.9 (71.4) (49.0)	
	실업자	818	860	887	827	831	787	
	실업률 (남성) (여성)	3.6 (3.8) (3.3)	3.7 (3.9) (3.4)	3.7 (4.0) (3.4)	3.5 (3.8) (2.9)	3.5 (3.8) (3.0)	3.2 (3.7) (2.6)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4,383 (2.4)	14,300 (-0.6)	14,557 (1.8)	14,784 (1.6)	14,752 (1.6)	14,919 (1.1)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65.4 (78.0) (52.9)	66.1 (78.3) (54.1)	66.3 (78.2) (54.5)	66.2 (77.8) (54.8)	66.3 (77.8) (54.8)	66.2 (77.7) (54.8)
		고용률 (남성) (여성)	63.0 (75.0) (51.1)	63.6 (75.2) (52.2)	63.7 (75.0) (52.5)	63.8 (74.7) (53.1)	63.8 (74.7) (53.1)	63.9 (74.7) (53.3)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2007년 임금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데, 1~10월 현재 5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동기보다 낮은 5.6%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 연평균 임금상승률도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5% 중반대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7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9%를 기록하여 2006년 71.0%와 비교해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이 2007년에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7.6%로 5~9인 소규모 사업체의 3.7%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비교한 규모별 임금격차는 2006년에 비해 소폭 확대되었다.

〈표 3〉 규모별 임금상승률 및 임금격차(500인 이상=100.0)

(단위 : %)

임금상승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0월	1~10월
전규모	5.1	11.2	9.2	6.0	6.6	5.7	5.8	5.6
5~9인	5.5	9.1	5.2	6.4	8.6	5.8	5.8	3.7
10~29인	7.3	6.2	6.1	7.6	7.0	5.1	5.3	6.6
30~99인	7.2	10.5	8.0	6.0	6.3	6.8	7.1	6.5
100~299인	4.2	15.8	7.9	7.1	5.4	5.1	5.1	7.3
300~499인	8.2	10.4	5.0	8.4	5.2	4.3	5.1	4.3
500인 이상	5.4	17.5	11.9	9.3	6.4	3.4	3.3	7.6
임금격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0월	1~10월
전규모	75.8	71.7	69.9	67.8	67.9	69.4	70.7	69.4
5~9인	58.1	53.9	50.7	49.3	50.4	51.5	52.9	51.0
10~29인	69.4	62.7	59.4	58.5	58.8	59.7	61.3	60.7
30~99인	72.6	68.3	65.9	63.9	63.8	65.9	67.6	66.9
100~299인	77.2	76.0	73.3	71.8	71.1	72.3	73.9	73.7
300~499인	92.3	86.7	81.3	80.7	79.7	80.4	82.3	79.7
500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2. 취업으로의 유입 감소에 따른 고용성과 부진

2007년(1~11월) 중 일자리 증가 규모는 전년(1~11월)대비 283천 명에 그쳐, 2005년 이후 3년째 일자리 창출 규모가 30만 명을 하회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고용성과 부진의 원인을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유입·유출 규모를 분석하였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이직월이 조사전월과 일치하는 경우를 각각 ‘취업에서 실업으로 유출’,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유출’로 인식하였고, 취업 유출률은 전월 취업자 대비 취업 유출자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입직월이 조사전월과 일치하는 경우는 단순한 직장 이동자(job to job mover)를 포함하므로 취업으로의 순유입 규모를 직접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취업자의 순변화 규모에서 취업 유출자 규모를 뺀 것을 취업 유입자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단,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였는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하였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취업 유입률은 전월 비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 유입자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2007년(1~11월) 취업자가 다음 달에 실직할 확률은 전년(1~11월)에 비해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자 100명 가운데 실직하는 비중은 2006년 3.0명에서 2007년 2.8명으로 감소하였다.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면, 실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할 확률이 0.2%p 감소하였다.

〈표 4〉 취업 유입·유출 변화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6(1~11)	2007(1~11)
취업자 순변화(A)	-30.0	418.5	299.1	294.7	295.1	283.3
취업유출(취업→실업·비경활, B)	767.4 (3.5)	732.3 (3.3)	720.8 (3.2)	710.3 (3.1)	695.6 (3.0)	645.6 (2.8)
취업유출(취업→실업)	172.7 (0.8)	174.7 (0.8)	171.7 (0.8)	163.4 (0.7)	165.0 (0.7)	155.6 (0.7)
취업유출(취업→비경활)	594.7 (2.7)	557.5 (2.5)	549.1 (2.4)	546.9 (2.4)	530.6 (2.3)	490.0 (2.1)
취업유입(실업·비경활→취업, A-B)	737.4 (5.0)	1150.8 (7.6)	1019.9 (6.7)	1005.0 (6.5)	990.7 (6.4)	928.9 (6.0)

주: ()안은 이행확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편 2007년(1~11월) 비취업자가 다음 달에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은 6.0%를 기록하였으며, 전년(1~11월)에 비해 0.4%p 하락하였다. 즉, 비취업자 100명 기준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월평균 2006년 6.4명에서 2007년 6.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2007년(1~11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전년(1~11월)에 비해 감소한 것은 실직규모의 감소(50.0천명)보다 취업으로의 유입 감소(61.8천명) 규모가 더 컸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3. 노동공급: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

2007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1~11월)과 동일한 수준인 61.9%를 기록하였고, 성별로는 남성은 0.1%p 감소, 여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표 5 참조).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와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녀 각각 0.6%p 감소하였고, 남성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여성 30대에서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한편 50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2007년(1~11월)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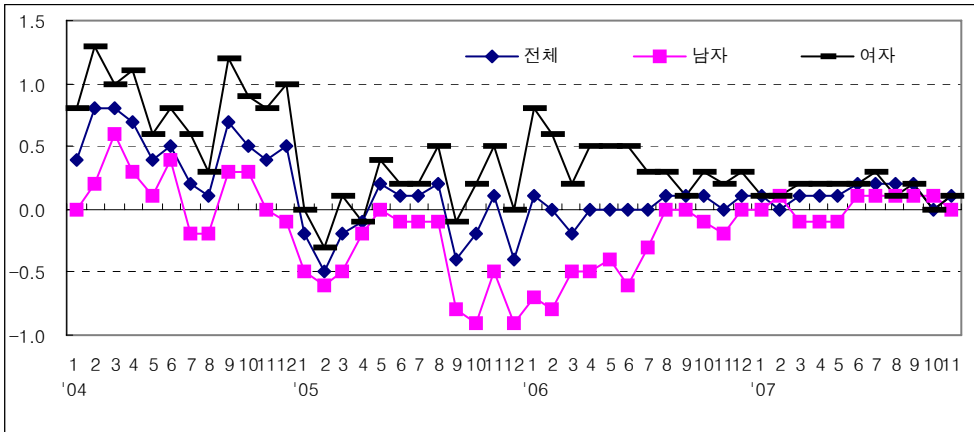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6 (1~11월)	2007 (1~11월)	(증감)
<전 체>	61.5	62.1	62.0	61.9	61.9	61.9	0.0p
<남 성>	74.7	75.0	74.6	74.1	74.2	74.1	-0.1p
15~19세	8.4	8.6	8.0	6.3	6.3	6.5	0.3p
20~29세	69.6	69.8	68.5	67.3	67.3	66.7	-0.6p
30~39세	95.0	94.6	94.4	93.8	93.9	93.6	-0.3p
40~49세	94.0	93.8	93.6	93.8	93.9	93.8	-0.1p
50~59세	85.6	85.6	85.5	85.5	85.5	86.8	1.2p
60세이상	48.6	49.7	49.8	50.7	50.9	51.9	1.0p
<여 성>	50.1	49.9	50.1	50.3	50.3	50.3	0.0p
15~19세	11.4	11.1	10.3	8.9	8.9	8.1	-0.8p
20~29세	61.3	63.3	64.4	63.5	63.6	62.9	-0.6p
30~39세	53.9	54.5	54.6	56.4	56.5	56.3	-0.2p
40~49세	63.0	64.2	64.4	65.0	65.0	65.8	0.8p
50~59세	52.6	53.2	54.3	54.7	54.8	55.7	1.0p
60세이상	27.8	28.3	28.1	28.3	28.5	29.0	0.5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고용률은 2004년 이후 여성주도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2007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둔화되어 전체 고용률의 정체화를 가져왔다(그림 1 참조). 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취업률 변화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로 요인분해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둔화가 고용률 정체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1] 성별 고용률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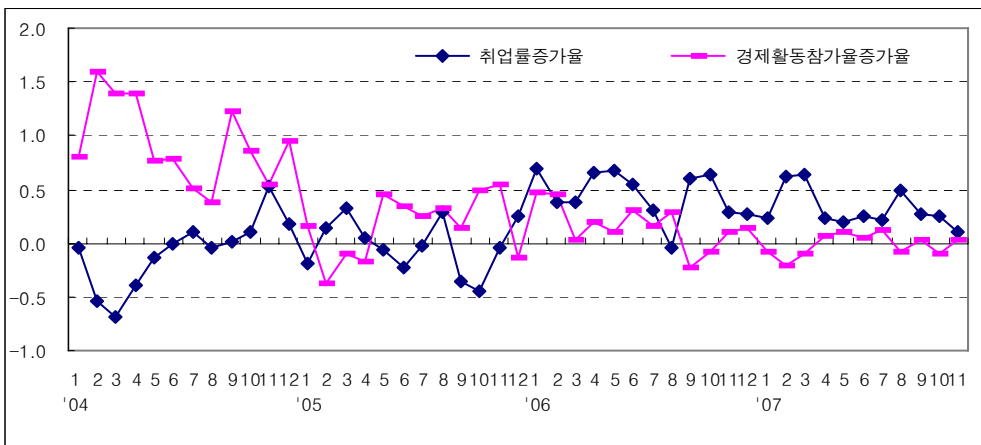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2] 여성 고용률 증가 요인분해

(단위: %)



주: 고용률증가율 = 취업률증가율 + 경제활동참가율증가율

취업률 = 100 - 실업률

자료: 통계청, KOSIS.

또한 전체 고용률 변화의 기여도를 연령계층별로 요인분해하면, 40세 미만 연령층의 고용률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4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표 6 참조). 특히 2003년 이후 고용률 정체는 청년층(15~29세)과 30대의 고용률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1~11월)의 고용률 기여도는 핵심연령계층인 20대(-0.4%p), 30대(-0.8%p), 40대(-0.1%p)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50대(0.9%)와 60대(0.3%p)인 중·고령층에서는 증가했다.

〈표 6〉 연령계층별 고용률 기여도 추이

(단위 :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고용률	기여도	고용률	기여도	고용률	기여도	고용률	기여도	고용률	기여도	고용률	기여도	고용률	기여도
2003	8.6	1.2	60.2	19.6	72.6	27.9	76.9	27.2	67.6	14.3	36.2	9.7	59.3	100.0
2004	8.4	1.1	61.1	19.2	72.6	27.4	77.3	27.5	67.8	14.8	36.9	10.0	59.8	100.0
2005	8.0	1.1	61.2	18.4	72.3	26.8	77.1	27.6	68.1	15.7	36.9	10.4	59.7	100.0
2006	6.7	0.9	60.2	17.5	73.2	26.5	77.7	27.7	68.5	16.6	37.4	10.8	59.7	100.0
2006 (1~11)	6.8	0.9	60.2	17.5	73.2	26.5	77.7	27.7	68.6	16.5	37.6	10.9	59.8	100.0
2007 (1~11)	6.6	0.9	60.1	17.1	72.8	25.7	78.3	27.6	69.7	17.4	38.4	11.2	59.9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최근 몇 년간 고용률은 59.7%에서 59.9% 사이에서 정체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고용률 정체를 야기하는 요인을 인구 변화,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로 나누어 연령계층별로 어떠한 요인이 주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표 7 참조). 청년층 고용률의 하락은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했다. 2005년까지는 청년층 인구의 비중 감소가 컸으나 2006년 이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난다.

2007년 들어 30대의 고용률이 하락한 데에는 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취업률 감소가 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50세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미치는 인구 비중 증가, 참가율 증가, 취업률 증가 모두 고용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2007년(1~11월)에는 참가율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표 7〉 고용률 요인분해

(단위 : %)

	1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취 업 률	참 가 율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율	취 업 률	참 가 율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율	취 업 률	참 가 율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율	취 업 률	참 가 율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율
2003	92.0	48.3	27.8	12.3	97.0	74.9	22.8	16.6	97.8	78.6	21.0	16.2	98.3	51.0	28.4	14.2
2004	91.7	49.2	26.9	12.1	96.9	74.9	22.6	16.4	97.7	79.1	21.3	16.5	98.2	51.6	29.3	14.8
2005	92.0	48.8	25.9	11.6	96.7	74.8	22.1	16.0	97.5	79.1	21.3	16.5	98.0	52.0	30.7	15.6
2006	92.1	47.1	25.4	11.0	97.0	75.5	21.6	15.8	97.7	79.5	21.3	16.5	98.1	52.5	31.7	16.4
2005 (1~11)	92.0	48.8	25.9	11.6	96.7	74.8	22.1	16.0	97.4	79.2	21.3	16.5	97.9	52.2	30.6	15.6
2006 (1~11)	92.1	47.1	25.4	11.0	97.0	75.5	21.6	15.8	97.7	79.6	21.3	16.5	98.1	52.7	31.7	16.4
2007 (1~11)	92.8	46.0	25.2	10.8	96.8	75.2	21.2	15.4	98.0	79.9	21.1	16.6	98.2	53.8	32.5	17.2
(변화분)																
2004	-0.2	0.9	-0.9	-0.2	-0.1	0.0	-0.2	-0.2	-0.1	0.5	0.3	0.3	-0.1	0.7	0.8	0.6
2005	0.3	-0.5	-1.0	-0.5	-0.2	-0.1	-0.5	-0.4	-0.2	0.0	0.1	0.0	-0.2	0.4	1.4	0.8
2006	0.1	-1.7	-0.5	-0.6	0.3	0.6	-0.5	-0.2	0.2	0.4	-0.1	0.1	0.2	0.6	1.1	0.7
2006 (1~11)	0.1	-1.7	-0.5	-0.6	0.3	0.7	-0.5	-0.1	0.2	0.4	-0.1	0.1	0.2	0.5	1.1	0.7
2007 (1~11)	0.6	-1.1	-0.2	-0.3	-0.2	-0.3	-0.5	-0.4	0.3	0.4	-0.1	0.0	0.1	1.1	0.8	0.8

주: 고용률기여율 = 취업률 × 경활참가율 × 해당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취업률 = 100 - 실업률.

$$\frac{E_i}{P} = \frac{E_i}{EP_i} \times \frac{EP_i}{P_i} \times \frac{P_i}{P}, \quad \left(\frac{\dot{E}_i}{P} \right) = \left(\frac{\dot{E}_i}{EP_i} \right) + \left(\frac{\dot{EP}_i}{P_i} \right) + \left(\frac{\dot{P}_i}{P} \right)$$

(단, E는 취업자수, EP는 경제활동인구, P는 생산가능인구, i는 해당연령층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4.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별한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추세는 2007년(1~11월)에도 지속되어 비경제활동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다(표 8 참조).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추세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8〉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노동력 상태 추이

(단위: 천명, %)

	2003	2004	2005	2006	2006(1~11월)	2007(1~11월)
취업자	22,139	22,557	22,856	23,151	23,165	23,449
실업자	818	860	887	827	831	787
비경제활동	14,383 (100.0)	14,300 (100.0)	14,557 (100.0)	14,784 (100.0)	14,752 (100.0)	14,918 (100.0)
육아·가사	6,658 (46.3)	6,723 (47.0)	6,726 (46.2)	6,773 (45.8)	6,757 (45.8)	6,820 (45.7)
재학·학업	3,908 (27.2)	3,742 (26.2)	3,736 (25.7)	3,904 (26.4)	3,892 (26.4)	4,051 (27.2)
취업준비	345 (2.4)	383 (2.7)	456 (3.1)	525 (3.6)	528 (3.6)	546 (3.7)
유휴	907 (6.3)	1,033 (7.2)	1,238 (8.5)	1,277 (8.6)	1,264 (8.6)	1,314 (8.8)
기타	2,566 (17.8)	2,419 (16.9)	2,400 (16.5)	2,304 (15.6)	2,311 (15.7)	2,187 (14.7)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이며, 유휴는 '그냥 쉬'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9〉 성별·연령계층별·학력별 취업준비, 유휴비경제활동인구 구성(1~11월)

(단위: 천명, %)

		취업준비				유 휴			
		2003		2007		2003		2007	
남성	15~29세	139	(39.9)	223	(40.8)	141	(15.8)	144	(11.0)
	30~54세	53	(15.2)	89	(16.3)	286	(32.0)	377	(28.7)
	55~64세	3	(0.8)	3	(0.5)	223	(24.9)	324	(24.7)
	65세 이상	0	(0.0)	0	(0.0)	87	(9.7)	220	(16.7)
	소 계	194	(55.9)	315	(57.6)	736	(82.4)	1065	(81.1)
여성	15~29세	131	(37.7)	196	(35.9)	81	(9.1)	101	(7.7)
	30~54세	22	(6.3)	35	(6.4)	48	(5.3)	77	(5.8)
	55~64세	0	(0.1)	1	(0.1)	15	(1.7)	33	(2.5)
	65세 이상	0	(0.0)	0	(0.0)	13	(1.5)	38	(2.9)
	소 계	153	(44.1)	231	(42.4)	157	(17.6)	249	(18.9)
고졸이하	15~29세	123	(35.5)	146	(26.8)	179	(20.1)	183	(14.0)
	30~54세	27	(7.8)	38	(6.9)	266	(29.8)	348	(26.5)
	55~64세	2	(0.6)	3	(0.5)	201	(22.5)	297	(22.6)
	65세 이상	0	(0.0)	0	(0.0)	88	(9.8)	218	(16.6)
	소 계	153	(43.9)	187	(34.2)	734	(82.2)	1046	(79.6)
전문대졸	15~29세	47	(13.5)	83	(15.2)	25	(2.8)	36	(2.7)
	30~54세	8	(2.4)	13	(2.4)	19	(2.2)	27	(2.0)
	55~64세	0	(0.1)	0	(0.0)	2	(0.3)	3	(0.2)
	65세 이상	0	(0.0)	0	(0.0)	1	(0.1)	3	(0.2)
	소 계	56	(16.1)	96	(17.6)	47	(5.3)	69	(5.3)
대졸이상	15~29세	99	(28.5)	189	(34.7)	19	(2.1)	26	(1.9)
	30~54세	39	(11.4)	73	(13.4)	48	(5.4)	79	(6.0)
	55~64세	1	(0.2)	1	(0.1)	34	(3.8)	57	(4.3)
	65세 이상	0	(0.0)	0	(0.0)	12	(1.3)	37	(2.8)
	소 계	139	(40.0)	263	(48.2)	112	(12.5)	198	(15.1)
전 체	347	(100.0)	546	(100.0)	893	(100.0)	1,314	(100.0)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이며, 유휴는 '그냥 쉬'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비경제활동 사유 중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와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연령별로 세분하여 보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청년층이 76.7%를 차지하는 반면, 특별한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이 81.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성 30~54세와 55~64세가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대졸 이상이 48.2%를 차지하는 반면,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졸 이하가 79.6%의 높은 수준을 보여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9 참조).

2003년(1~11월)과 2007년(1~11월)을 비교해 보면, 2003년에 비해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 중장년층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청년층에서 두드러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남성 중장년층을 살펴보면, 남성 중장년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7년(1~11월) 남성 30~54세의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377천 명(3.7%), 55~64세는 324천 명(14.7%)에 이른다. 이를 2003년과 비교하면 30~54세는 91천 명, 55~64세는 101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표 11>의 남성 중장년층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직유무 및 전직 특성을 살펴 보면, 남성 30~54세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을 그만둔지 1년 미만인 비중이 55.9%에 이르며, 55세 이상은 일을 그만둔지 1년 이상인 자의 비중이 61.3%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중장년층(30~54세)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직 특성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일을 그만둔 비중이 56.2%(118.3천명)에 이르며, 일을 그만둔지 6개월 이내인 자의 비중이 8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직 당시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

<표 10>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남성 중장년층의 구성(1~11월)

(단위: 천명, %)

	30~54세		55~64세		
	2003	2007	2003	2007	
취업자	8,758 (91.4)	9,116 (90.4)	1,393 (70.9)	1,649 (74.8)	
실업자(A)	237 (2.5)	266 (2.6)	38 (1.9)	46 (2.1)	
비경활	육아·가사	30 (0.3)	46 (0.5)	32 (1.6)	32 (1.5)
	재학·학업	13 (0.1)	19 (0.2)	0 (0.0)	0 (0.0)
	취업준비(B)	53 (0.6)	89 (0.9)	3 (0.1)	3 (0.1)
	유휴(C)	286 (3.0)	377 (3.7)	223 (11.3)	324 (14.7)
	기 타	202 (2.1)	174 (1.7)	278 (14.1)	150 (6.8)
소 계	583 (6.1)	704 (7.0)	535 (27.2)	509 (23.1)	
취업애로층(A+B+C)	576 (6.0)	731 (7.3)	263 (13.4)	373 (16.9)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이며, 유휴는 '그냥 쉬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1〉 남성 중장년층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직유무 및 전직 특성(1~11월)

(단위: 천 명, %)

		30~54세	55~64세
전 체		376.7 (100.0)	324.2 (100.0)
전직유무	1년 미만	210.6 (55.9)	124.1 (38.3)
	1년 이상	162.1 (43.0)	198.7 (61.3)
	없었음	4.1 (1.1)	1.4 (0.4)
전직사유 (1년 미만 전직자)	자발적	84.8 (40.3)	54.6 (44.0)
	비자발적	118.3 (56.2)	66.9 (53.9)
	기 타	7.5 (3.6)	2.6 (2.1)
전직기간 (1년 미만 전직자)	0~3개월	124.1 (58.9)	62.8 (50.6)
	4~6개월	45.0 (21.3)	29.6 (23.8)
	7~9개월	27.5 (13.1)	19.9 (16.0)
	10~11개월	14.0 (6.7)	11.8 (9.5)
전직시 종사상 지위 (1년 미만 전직자)	상용직	27.9 (13.2)	23.2 (18.7)
	임시직	42.3 (20.1)	22.2 (17.9)
	일용직	84.6 (40.1)	42.7 (34.4)
	고용주	15.8 (7.5)	9.3 (7.5)
	자영자	35.4 (16.8)	23.9 (19.2)
	무급가족종사자	4.7 (2.2)	2.8 (2.3)

주: 유휴는 '그냥 쉬'임.

자료: 통계청(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고용불안정 계층이 79.2%에 이르고 있다.

2007년(1~11월) 청년 비경제활동 사유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진학 준비 등의 '재학·학업 비경제활동'이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1~11월) 39.1%에서 2007년(1~11월) 40.7%로 증가했다. 특히 정규교육기관 통학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급증하여 2003년(1~11월) 37.0%에서 2007년(1~11월) 40.6%를 나타냈으며, 그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자의 비중이 급증하였다(2003년(1~11월) 18.1%→2007년(1~11월) 20.0%).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개인적인 취업준비 등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이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7년(1~11월) 정체상태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냥 쉬었다"인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3년 2.2%에서 2005년 2.8%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고, 꾸준히 증가하던 취업애로층(실업자+취업준비 비경제활동+유휴 비경제활동)의 비중은 2006년(1~11월) 10.6%에서 2007년(1~11월) 10.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마친 청년층(졸업·중퇴)으로 한정할 경우 취업애로층 비중은 2003년(1~11월) 12.4%에서 2007년(1~11월) 15.6%로 크게 증가했다. 2006년(1~11월)과 비교해 보면 취업애로층은 0.4%p 감소하였지만, 이는 실업자 비중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고

<표 12>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청년 인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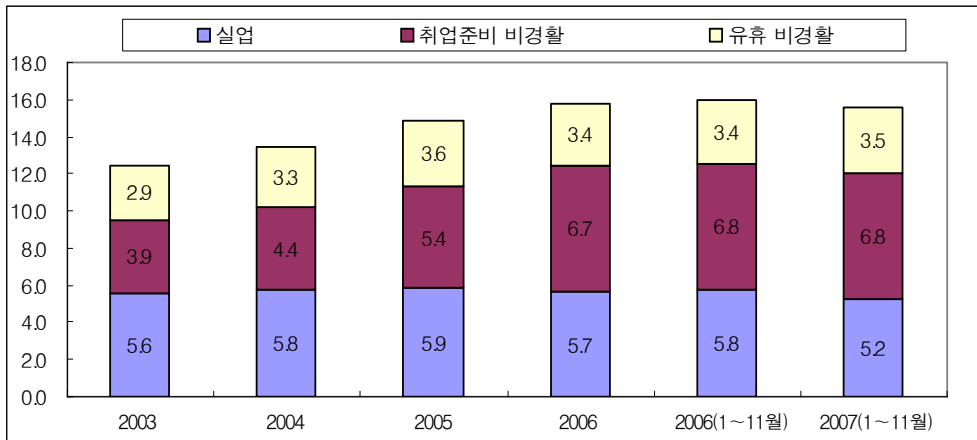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6(1~11)	2007(1~11)
취업		4,606 (44.4)	4,578 (45.1)	4,450 (44.9)	4,270 (43.4)	4,273 (43.4)	4,210 (42.7)
실업(A)		401 (3.9)	412 (4.1)	387 (3.9)	364 (3.7)	364 (3.7)	328 (3.3)
비경제활동	육아·가사	773 (7.5)	693 (6.8)	571 (5.8)	521 (5.3)	522 (5.3)	504 (5.1)
	재학·학업	3,872 (37.3)	3,704 (36.5)	3,701 (37.3)	3,865 (39.3)	3,853 (39.1)	4,014 (40.7)
	취업준비(B)	268 (2.6)	297 (2.9)	351 (3.5)	413 (4.2)	416 (4.2)	419 (4.2)
	유휴(C)	225 (2.2)	258 (2.5)	278 (2.8)	258 (2.6)	258 (2.6)	245 (2.5)
	기 타	223 (2.2)	199 (2.0)	183 (1.8)	152 (1.5)	155 (1.6)	136 (1.4)
소 계		5,361 (51.7)	5,151 (50.8)	5,083 (51.2)	5,209 (52.9)	5,205 (52.9)	5,318 (54.0)
취업애로총(A+B+C)		893 [8.6]	966 [9.5]	1,016 [10.2]	1,035 [10.5]	1,039 [10.6]	992 [10.1]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이며, 유휴는 '그냥 쉬'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3] 학교를 마친 청년의 취업애로총 비중과 구성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오히려 유휴 비경제활동의 비중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학력간 구직행태의 차이를 <표 13>을 통해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와 유휴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은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높아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13〉 학교를 마친 청년층의 학력별 취업애로층 구성(1~11월)

(단위: 천 명, %)

		전 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03	취업자	3,886.4 (69.0)	1,936.1 (63.7)	1,003.1 (76.3)	947.3 (74.0)
	실업자	315.2 (5.6)	164.4 (5.4)	77.5 (5.9)	73.4 (5.7)
	육아·가사 비경제활동	753.6 (13.4)	508.2 (16.7)	134.6 (10.2)	110.8 (8.7)
	통학 비경제활동	171.6 (3.0)	146.6 (4.8)	11.0 (0.8)	14.0 (1.1)
	취업준비 비경제활동	222.2 (3.9)	78.4 (2.6)	47.1 (3.6)	96.8 (7.6)
	유휴 비경제활동	161.5 (2.9)	118.6 (3.9)	24.7 (1.9)	18.3 (1.4)
	기타 비경제활동	123.2 (2.2)	87.5 (2.9)	16.3 (1.2)	19.4 (1.5)
	계	5,633.7 (100.0)	3,039.7 (100.0)	1,314.1 (100.0)	1,279.9 (100.0)
취업애로층		698.9 (12.4)	361.4 (11.9)	149.2 (11.4)	188.4 (14.7)
2007	취업자	3,477.6 (69.2)	1,288.7 (61.1)	1,150.4 (77.2)	1,038.5 (72.9)
	실업자	263.1 (5.2)	115.9 (5.5)	76.2 (5.1)	70.9 (5.0)
	육아·가사 비경제활동	486.1 (9.7)	283.7 (13.5)	121.9 (8.2)	80.6 (5.7)
	통학 비경제활동	199.7 (4.0)	173.2 (8.2)	12.7 (0.9)	13.8 (1.0)
	취업준비 비경제활동	343.6 (6.8)	74.5 (3.5)	82.8 (5.6)	186.4 (13.1)
	유휴 비경제활동	177.3 (3.5)	116.2 (5.5)	36.1 (2.4)	25.1 (1.8)
	기타 비경제활동	74.6 (1.5)	55.4 (2.6)	9.4 (0.6)	9.9 (0.7)
	계	5,022.2 (100.0)	2,107.5 (100.0)	1,489.5 (100.0)	1,425.2 (100.0)
취업애로층		784.1 (15.6)	306.5 (14.5)	195.1 (13.1)	282.4 (1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5. 노동수요: 일자리 창출력의 저하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7년 1/4~3/4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7년 1/4~3/4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52천 명이 감소하였다.

건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7년 1/4~3/4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는데, 전년에 2.1% 감소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건설업의 취업자는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에 힘이어 2007년 1/4~3/4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23천 명이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의 형태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운수창고 및 통신업, 공공서비스업 등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나머지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고용 증가 역시 부가가치 증가가 높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에서 고용은 감소하였다.

〈표 14〉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및 고용 증가

(단위: %, 천 명)

	2004		2005		2006				2007	
	1인당 부가 가치	취업자	1인당 부가 가치	취업자	1인당 부가 가치	취업자	1/4~3/4분기		1/4~3/4분기	
							1인당 부가 가치	취업자	1인당 부가 가치	취업자
전산업	2.8	418	2.8	299	3.7	295	4.0	300	3.5	283
농림어업	17.2	-128	0.9	-2	-1.1	-26	-0.6	-42	7.1	-55
제조업	8.9	85	8.5	-56	10.1	-67	11.2	-68	6.8	-52
건설업	1.6	4	0.2	-6	-1.2	21	-2.1	18	1.4	23
금융보험	0.4	-13	3.6	8	-0.6	40	-1.5	49	7.5	14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8.1	188	-2.8	123	-1.8	132	-2.3	134	-4.6	1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3	10	3.0	-56	4.3	-44	4.4	-35	4.3	-42
운수창고 및 통신업	3.7	43	1.0	52	1.6	43	2.1	38	2.8	42
기타서비스업	-11.9	208	-2.8	100	0.5	54	1.1	41	0.2	62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0.6	11	-0.4	23	1.7	10	0.1	23	4.6	-16
교육서비스업	0.6	23	-2.7	61	-2.9	90	-3.5	97	-0.4	3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7	55	-2.9	52	0.9	40	1.3	39	0.6	5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5〉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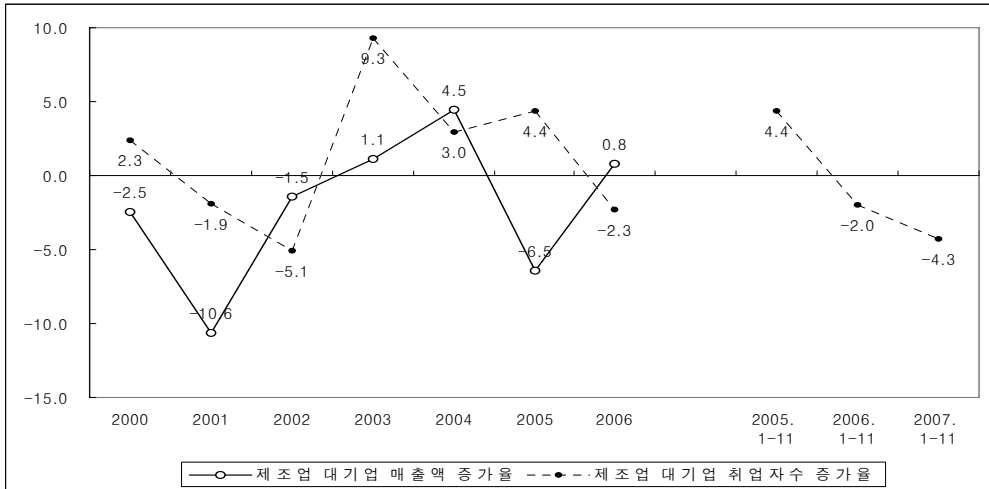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1/4~3/4분기	1/4~3/4분기
전산업	30,766	31,638	32,795	23,860	24,695
농림어업	14,442	14,566	14,402	6,666	7,139
제조업	45,428	49,285	54,281	39,788	42,483
건설업	28,274	28,342	27,990	19,434	19,705
금융보험	62,617	64,869	64,483	47,676	51,253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9,023	37,922	37,253	27,398	26,1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145	10,452	10,898	7,961	8,301
운수창고 및 통신업	36,925	37,293	37,899	28,431	29,232
기타서비스업	12,519	12,164	12,223	9,265	9,286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41,456	41,293	42,001	31,349	32,780
교육서비스업	19,783	19,244	18,687	13,965	13,9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3,510	22,837	23,049	16,843	16,942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 움직임의 방향은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기업은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대기업의 고용은 전년에 이어 2007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하락폭도 전년보다 커진 반면, 중소 제조업의 고용은 2007년 0.1% 상승으로 반전되었다.

〔그림 4〕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제조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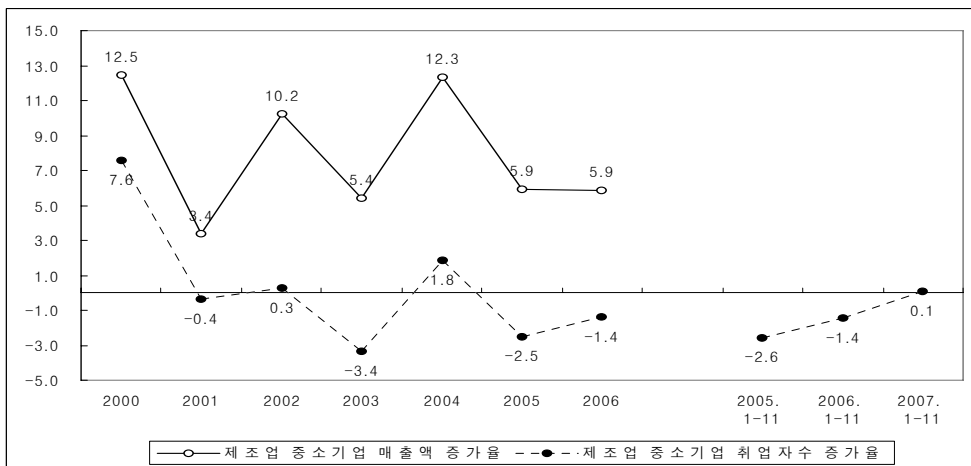


주: 대기업 기준은 종사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5〕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제조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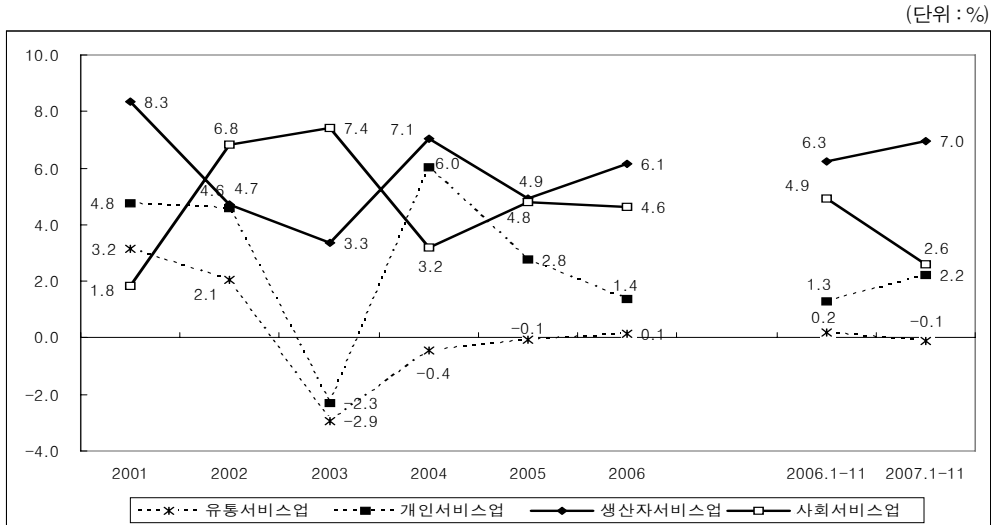


주: 중소기업 기준은 종사자수 300인 미만 사업체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최근 5년간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를 주도하던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생산자서비스업은 2007년 1~11월 현재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205천 명 증가) 사회서비스업은 81천 명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가사, 기타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가에 힘입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유통서비스업의 고용은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6]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 추이



- 주: 1)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사업서비스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2) 유통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도·소매업+운송업+통신업
 3)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숙박·음식업+오락·문화사업+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4)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서비스업+보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전년에 이어 2007년에도 임금근로자의 견실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4년 492천 명에 근접하는 규모의 임금근로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 한편, 임시직 근로자는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일용직 근로자는 대폭 감소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폭은 2003년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자영업자수와 자영업자 소득은 대체로 동반감소하였으나 2006년 들어 자영업자수는 계속 하락한 반면, 자영업자 소득(개인영업잉여, 가구주 실질개인소득)은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이는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구조과정을 거치면서 저소득의 한계 자영업 계층이 퇴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자영업 평균소득은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16〉 서비스업의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1~11	2007. 1~11
서비스업 전체	근로자수	13,480	14,024	14,053	14,510	14,880	15,250	15,234	15,601
	증 가	540	544	29	457	370	371	381	368
	증가율	4.2	4.0	0.2	3.2	2.5	2.5	2.6	2.4
유통서비스업	근로자수	5,253	5,362	5,204	5,181	5,177	5,184	5,182	5,175
	증 가	161	109	-158	-23	-4	7	10	-6
	증가율	3.2	2.1	-2.9	-0.4	-0.1	0.1	0.2	-0.1
도소매업	근로자수	3,931	3,991	3,871	3,805	3,748	3,713	3,715	3,676
	증 가	98	60	-120	-66	-57	-35	-34	-39
	증가율	2.6	1.5	-3.0	-1.7	-1.5	-0.9	-0.9	-1.0
운수업	근로자수	1,114	1,140	1,084	1,128	1,149	1,163	1,159	1,215
	증 가	46	25	-55	43	22	13	10	56
	증가율	4.3	2.3	-4.9	4.0	1.9	1.2	0.9	4.8
통신업	근로자수	208	231	249	248	279	308	308	284
	증 가	16	23	18	-1	31	29	30	-23
	증가율	8.5	11.0	7.7	-0.3	12.5	10.2	11.0	-7.6
개인서비스업	근로자수	3,517	3,678	3,593	3,809	3,914	3,968	3,959	4,047
	증 가	160	161	-85	216	106	54	46	86
	증가율	4.8	4.6	-2.3	6.0	2.8	1.4	1.2	2.2
음식숙박업	근로자수	1,943	2,007	1,981	2,057	2,058	2,049	2,046	2,046
	증 가	24	64	-25	76	1	-9	-8	0
	증가율	1.2	3.3	-1.3	3.8	0.0	-0.4	-0.4	0.0
오락문화서비스업	근로자수	393	418	425	458	501	499	499	493
	증 가	28	25	7	33	43	-2	-2	-6
	증가율	7.7	6.4	1.7	7.8	9.3	-0.4	-0.4	-1.2
가사서비스업	근로자수	206	215	192	125	130	138	137	161
	증 가	19	9	-23	-67	5	8	8	23
	증가율	10.4	4.5	-10.8	-35.1	4.1	6.5	6.2	16.8
기타서비스업	근로자수	975	1,038	994	1,169	1,226	1,282	1,277	1,348
	증 가	89	63	-44	174	57	56	52	71
	증가율	10.0	6.5	-4.2	17.5	4.9	4.6	4.2	5.6
생산자서비스업	근로자수	2,289	2,397	2,477	2,652	2,783	2,954	2,947	3,152
	증 가	176	108	80	175	131	171	177	209
	증가율	8.3	4.7	3.3	7.1	4.9	6.1	6.4	7.1
사업서비스업	근로자수	1,149	1,251	1,303	1,461	1,540	1,668	1,661	1,840
	증 가	139	102	53	158	79	128	125	179
	증가율	13.7	8.9	4.2	12.1	5.4	8.3	8.1	10.8
금융보험업	근로자수	760	734	751	738	746	786	786	808
	증 가	8	-26	17	-13	8	41	43	22
	증가율	1.1	-3.4	2.3	-1.7	1.0	5.4	5.8	2.8
부동산업	근로자수	381	413	423	453	497	500	500	504
	증 가	29	32	10	30	44	2	5	4
	증가율	8.3	8.4	2.5	7.0	9.8	0.5	1.0	0.8
사회서비스업	근로자수	2,421	2,587	2,779	2,868	3,005	3,145	3,146	3,227
	증 가	44	166	192	89	138	139	147	81
	증가율	1.8	6.8	7.4	3.2	4.8	4.6	4.9	2.6
공공행정서비스업	근로자수	701	702	757	768	791	801	805	797
	증 가	-57	1	55	11	23	10	14	-8
	증가율	-7.5	0.1	7.8	1.5	3.1	1.3	1.7	-1.0
교육서비스업	근로자수	1,236	1,335	1,484	1,507	1,568	1,657	1,657	1,688
	증 가	45	98	149	23	61	90	94	31
	증가율	3.8	8.0	11.2	1.5	4.1	5.7	6.0	1.9
보건·사회복지사업	근로자수	484	551	539	594	646	686	684	742
	증 가	56	67	-12	55	53	39	40	58
	증가율	13.0	13.8	-2.1	10.2	8.9	6.1	6.2	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1~11.	2007 1~11.
전 체	597	-30	418	299	295	295	283
임금근로자	522	221	492	291	365	358	423
상 용	148	407	356	293	287	280	417
임 시	160	118	78	-26	87	87	37
일 용	215	-303	58	25	-9	-9	-31
비임금근로자	75	-252	-73	8	-71	-63	-140
고용주	63	12	50	-15	-32	-29	-70
자영자	77	-161	17	77	-6	-2	-14
무급가족종사자	-66	-103	-141	-55	-33	-31	-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8〉 자영업자수 및 실질개인영업잉여, 자영업자 실질개인소득 추이

(단위 : 2000=100.0, %)

	자영업자수		실질개인영업잉여		가구주 실질개인소득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1999	104.5		124.2		87.8	
2000	105.5	1.0	122.5	-1.4	92.9	5.8
2001	105.9	0.3	112.6	-8.1	95.1	2.3
2002	106.1	0.2	120.8	7.3	99.5	4.7
2003	101.7	-4.1	106.4	-11.9	102.5	3.0
2004	99.6	-2.0	101.7	-4.4	100.3	-2.2
2005	100.0	0.4	100.0	-1.7	100.0	-0.3
2006	99.4	-0.6	111.8	11.8	102.3	2.3
2005. 1/4~3/4	102.7					
2006. 1/4~3/4	102.2	-0.5				
2007. 1/4~3/4	100.8	-1.4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2007. 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II. 2008년 고용 전망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2008년 GDP 성장률은 2007년의 4.8%보다 다소 낮은 4.7%를 기록하고, 기간별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

국은행).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 등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건설투자와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9〉 주요 기관의 2008년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성장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 출	수 입	소비자 물가	실업률
한국은행 (2007. 12)	연 간	4.7	4.3	6.4	2.8	10.3	10.2	3.3	3.2
	상반기	4.9	4.5	4.5	1.6	9.4	8.6	3.5	3.3
	하반기	4.4	4.0	8.3	3.9	11.1	11.7	3.1	3.1
KDI (2007. 10)	연 간	5.0	4.5	6.2	4.3	10.9	13.2	2.8	3.2
LG경제연구소 (2007. 10)	연 간	5.0	4.7	7.1	6.0	11.6	14.3	2.7	3.2
삼성경제연구소 (2007. 11)	연 간	5.0	4.5	7.1	3.1	11.0	12.8	3.0	3.2
한국경제연구원 (2007. 10)	연 간	5.1	4.6	9.0	3.2	9.8	11.5	2.6	3.3

〈표 20〉 2008년 주요 고용지표 전망

(단위: 천 명, %)

	2007			2008p		
		상반기	하반기p		상반기p	하반기p
경제성장률	4.8	4.5	5.1	4.7	4.9	4.4
생산가능인구	39,161 (1.0)	39,066 (1.0)	39,255 (1.0)	39,552 (1.0)	39,457 (1.0)	39,648 (1.0)
경제활동인구	24,218 (1.0)	24,090 (1.0)	24,347 (1.0)	24,521 (1.2)	24,371 (1.2)	24,671 (1.3)
참가율	61.8	61.7	62.0	62.0	61.8	62.2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3,437 (1.2) (286)	23,270 (1.2) (277)	23,605 (1.3) (296)	23,727 (1.2) (290)	23,567 (1.3) (297)	23,887 (1.2) (282)
고용률	59.9	59.6	60.1	60.0	59.7	60.2
실업자	781	821	742	794	805	784
실업률	3.2	3.4	3.0	3.2	3.3	3.2

주: p는 전망치임.

2008년에도 노동시장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부진, 취업구조의 고령화,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지속, 개인·유통서비스업 및 자영업 취업성과 부진 등의 특징들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일자리 창출, 즉 취업자 증가는 약 290천 명, 취업자 증가율 1.2%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¹⁾,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KLI**

1) 2008년 경제성장률 4.7%, 고용탄력성(GDP 1%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을 2001~2006년 평균값인 0.307을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자리 증가 338천 명에 하회하는 수준이다.